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통하여 듣는 주님의 음성듣기 (1) (4/29/2021)

『그리스도를 본받아』의 묵상록을 그것의 바탕이 된 성경말씀과 함께 연결하여 묵상하기

(박문재 역(라틴어 원전 완역판) 참조)

요 8:12 -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계 2:17 -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토마스 아켄피스와 『그리스도를 본받아』에 대하여

독일의 영성가이며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켄피스(Thomas A Kempis, 1380-1471)는 '공동생활 형제단'에 속하여 수도의 삶을 살았다. 아켄피스는 삶 속에서 행동과 실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닮기를 추구했던 성 프란시스의 방법론과는 차별화된 것으로서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성훈련을 추구하였다. 다시 말해서,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는' 영성훈련은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명상들'이라는 기도 지침서들의 유행으로부터 비롯되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명상이나 상상 속에서 그리스도가 겪은 사건의 현장에 참여하면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경험하였는데, 이러한 참여적인 기도법은 지성 뿐만 아니라 의지와 감정을 같이 수반하는 전인간적인 행위로서 명상이나 관상(contemplation)을 의미한다. 아켄피스는 이러한 전통을 그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The Imitation of Christ)(1418-27)에 잘 나타내었고, 이 책은 영성훈련의 고전으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는 명상과 기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본받는 삶을 수도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수난을 명상함으로써 개인의 내면적인 삶을 그리스도적으로 형성하는데 있다. 아켄피스가 말하는 명상은 단순한 정신적인 수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의 패턴을 나의 전인적인 삶에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아켄피스에게서 자아는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면서 형성되어 가는 존재를 의미한다.

제 1 권 영적 삶에 유익한 권면들

제 1 장 “그리스도를 본받고, 세상과 그 모든 헛된 것들을 멸시함” 1-2 절

1. 주님께서서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요 8:12).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우리가 참된 빛을 받아서, 마음의 온갖 눈먼 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한다면, 그리스도의 삶과 성품을 본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삶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해설:

- 요 8:12 -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주님을 따르는 것’과 빛을 연결하신 주님. 주님을 믿고 주님의 길을 걷고 주님처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빛을 경험한다. 그 이유는 주님이 **“세상의 빛”**이시기 때문이다. 성경은 메시아를 빛에 비유한다(사 9:2 - 흑암에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따라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주님은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빛을 얻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아울러 빛을 얻는다는 것은 어둠 속의 삶(악한 삶, 죄악된 삶)이 아니라 빛 된 삶(선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주님을 통해 생명의 빛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안에서 주님을 따르며 빛 된 삶을 살아간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을 따르기를 힘쓴다. 주님을 따르기를 힘쓰는 사람은 가장 기본적으로 주님을 목상한다. ‘그리스도를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목상한다.

2.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성인들의 모든 가르침보다 더 뛰어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그분의 가르침 속에 숨겨진 만나를 발견합니다(계 2:17).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자주 들어도 감동을 별로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제대로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 전체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자 하여야 합니다.

말씀과 해설:

계 2:17-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

주님은 교회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듯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숨겨진 만나와 같다. 숨겨진 만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그래서 영성의 사람이 된다. 영성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달는 사람이며,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영성을 가진 성도는 늘 성령을 초청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귀는 들을 귀가 되며, 우리의 마음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된다.

아캠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방법 하나를 소개한다.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것이다.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애쓴다. 동시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애쓰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음성은 신앙의 실천, 섬김, 봉사 중에 듣게 된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오늘도 우리의 온 존재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말씀, 숨겨진 만나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아울러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섬기며 본받아 나아가는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3. 코비드로 극심한 혼돈과 절망을 경험하는 인도를 비롯한 빈곤한 국가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